

담양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중앙로 일대’ 지정

4만227㎡ 면적에 224개 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침체 원도심 경제 활력 기대

담양군이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앙로 일대로, 약 4만227㎡ 면적에 22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현재 107개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결제 시에는 결제 금액의 10%가 환급되는 ‘디지털온누리 10%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인과 관광객은 더 알뜰하게 소비하고, 상점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담양군이 지역 첫 골목형상점가로 ‘담양중앙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하늘에서 본 중앙로 일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구역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함께 정부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지

며,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이번 지정을 앞두고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주 중심 상점가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담양읍 원도심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아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된 구역이 많았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앞으로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관광지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해 원도심 중심의 상권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이번 첫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 소규모 상권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담양읍 원도심과 인근 관광지 상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올 상반기 ‘나주밥상’ 8곳 추가 선정

지역 대표 외식 브랜드 육성

나주시가 지역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나주밥상 지정사업’에 올해 상반기 8곳의 음식점을 추가 선정했다.

‘나주밥상’은 나주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음식문화 개선 및 먹거리 명소화 전략의 하나로 건강, 안심, 배려 3대 실천 서약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역 대표 외식 브랜드다.

서류심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여부, 위생이력, 식중독 발생 여부 등을 검토했고 현장평가에서는 위생감시원이 조리장과 주방, 화장실 등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시민평가단은 음식의 맛과 가격, 서비스 등을 평가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시는 특히 시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숨은 맛집 추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수 추천을 받은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역민의 참여

를 강화했다.

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곳의 외식업소를 나주밥상으로 선정했으며 나주곰탕, 장어, 한정식, 생고기비빔밥 등 지역 대표 음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선정 업소에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며 관광안내소와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에 비치할 홍보지도 제작과 시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나주밥상을 지역 대표 음식관광 브랜드로 정착시켜남도 음식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숨은 맛집을 직접 추천하고 평가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나주밥상이 외식문화 수준을 높이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맛의 도시 나주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강좌 운영

14일까지 4개면 복지회관에서

화순군은 지난 29일 능주면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강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 조성 강좌’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웰다잉 강좌는 오는 14일까지 4개면 복지회관

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웰다잉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61-379-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고 존엄하게 맞이하는 웰다잉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상 받아

강진군이 청년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강진군은 ‘청년의 미래를 만드는 희망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온 커뮤니티 기반 청년 정책을 발표해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공약과 정책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전국 141개 지자체가 401건의 정책을 제출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191건이 현장 발표 심사에 올랐다. 강진군은 이 중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진군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이 지역

공동체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에 주력해왔다.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돌맹이 마을’과 귀촌 청년의 빈집 리모델링 사례, 하멜양조장 제조시설을 통한 일자리 지원,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청년 역량 강화 등 실제 정착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 푸소(FU-SO)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청년 및 인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입증했다.

앞서 강진군은 올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년인구의 지역 유입에만 그치지 않고 혁신, 공유, 연결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잡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청사 청렴계단 조성 소통·배려 새겨 실천 독려 공직자 인식 제고 캠페인도



장성군 직원들이 군청사 내 중앙계단에 새롭게 조성한 청렴계단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이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청사 내 중앙계단을 ‘청렴계단’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장성군은 청렴 문구가 담긴 표찰을 제작해 계단 곳곳에 부착했다. 문구에는 ‘소통과 배려로 만들 어가는 청렴 장성’, ‘청렴을 위한 한 걸음, 군민을 위한 백 걸음’ 등 청렴한 공직자상을 일깨우는 문장이 담겼다. 일상적인 공간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장성군은 올해 ‘청렴 콘서트’, ‘반부패 청렴교육’ 등 공직자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이야말로 공무원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며 “900여 공직자와 함께 청렴계단을 오르며, 날마다 새롭게 군정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희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66명 최종 선발 하반기 공공일자리 본격화

장흥군은 최근 군민회관에서 올해 하반기 공공 일자리사업 발대식과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과 장기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119명이 신청, 정부합동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및 참여 이력 기준에 따른 일모아 시스템 검증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66명(공공근로 32명·지역공동체 34명)이 최종 선발됐다.

군은 25명을 추가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근로의식 제고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에서 이틀간 실무 중심의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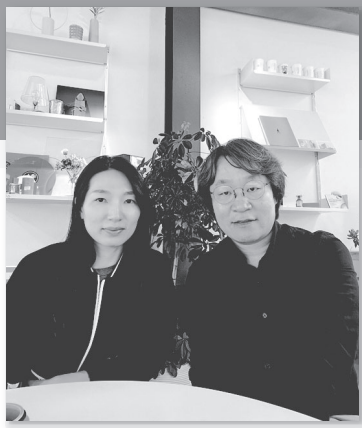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